

디지털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번역 현상에 관한 고찰: 중국 한시 번역을 중심으로*

이현주(가톨릭대학교)

1. 서론

인터넷의 보편화,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보급 등에 힘입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전통적인 펜과 종이 중심의 글쓰기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전통 매체 중심의 시대에는 뉴스는 기자가 쓰고 신문사를 통해서 유통되었고 소설, 시, 수필과 같은 문학은 등단한 작가가 쓰고 출판사를 통해 책의 형태로 독자와 만날 수 있었다. 어떤 형태의 글이든 독자를 상정한 글쓰기는 마치 전문인, 지식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시대가 존재했다. 1인 1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든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망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혹은 특정 독자를 향한 글을 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글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인터넷 환경과 전자매체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 환경이

* 본 줄고를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많이 수정하였음에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심사위원분들의 건의를 다 반영하지 못한바, 본고 안에서 미처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내용은 향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변화하면서 다양한 글쓰기 플랫폼이 출현하였다. 예컨대,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의 불특정 키워드를 통해 방문이 가능한 블로그, 비슷한 관심사를 주제로 한 사용자 간 네트워크 중심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글로 이루어진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글쓰기 플랫폼의 공통점은 바로 실시간으로 글을 게시하고 사공을 초월하여 글을 쓰는 저자와 글을 읽는 독자 간 교류와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글쓰기 플랫폼은 바로 네이버 블로그일 것이다. 물론 이 밖에도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블로그 형태의 글쓰기 플랫폼으로는 티스토리, 브런치스토리 등이 있다¹⁾. 각각의 글쓰기 플랫폼은 저마다 다른 글쓰기 목적을 지닌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공한다. 네이버 블로그는 국내 최대 검색 엔진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의 검색창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개인적인 일기에서부터 후기, 정보 공유, 제품과 서비스 홍보 등 가장 다양한 목적의 글들이 게시되고 있으며, 티스토리는 일정 정도의 글을 쓰면 광고 연결이 쉽고, 이로부터 얻는 수익이 비교적 큰 편이라 글쓰기를 하나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목적성이 엿보이는 글들이 주로 게시되는 반면, 브런치스토리는 최초 런칭부터 ‘작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글을 써 출판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가벼운 글쓰기보다는 수필 성격의 글이나 전문가의 글들이 주류를 이루는 공간이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 플랫폼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글쓰기 안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번역을 위한 번역이 아니라 글쓰기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활용되는 번역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블로그 글 안에 담긴 번역의 품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라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린 글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특징이 무엇이며 이러한 번역이 가지는 문제와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본고에서 ‘블로그’는 블로그 형태의 글쓰기 플랫폼을 아우르는 의미로 ‘네이버 블로그’에 국한하지 않는다.

2. 디지털 글쓰기와 번역

2.1 디지털 글쓰기 ‘블로그’

‘디지털 글쓰기(digital writing)’란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를 총칭하며, 예컨대, 블로그,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이메일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지영(2021, p. 602)은 ‘디지털 글쓰기’를 “PC,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과 같은 도구와 상관없이 인터넷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라고 정의하였고, 국내 학계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학계에서 ‘디지털 글쓰기’라는 용어로 정착하기까지 연구자에 따른 조각적 정의에 따라 ‘인터넷 글쓰기’, ‘컴퓨터 글쓰기’, ‘온라인 글쓰기’, ‘웹 기반 글쓰기’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됐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글을 쓰는 것”으로 정의된다(최지연, 2023, pp. 12-13).

디지털 글쓰기는 기술발전이 가져온 글쓰기의 환경 변화에 따라 출현한 색다른 글쓰기 형태로서 전통적인 글쓰기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다. 전통적인 글쓰기에서 펜과 종이와 필수 도구였다면 디지털 글쓰기에서는 인터넷은 물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전통 매체가 단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디지털 매체는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 공간에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공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면서 ‘참여’와 ‘공유’가 핵심인 웹 2.0 시대가 열렸다. 함대훈(2022)은 웹 1.0이 “오로지 ‘읽기’만 가능한 클릭 외에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는 정적인 웹페이지”였다면 웹 2.0은 “‘읽기’만 가능했던 이용자들이 이제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미 웹 3.0 시대의 도래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웹 2.0의 핵심은 서비스의 개방과 데이터의 공유이며, 이용자들이 웹 2.0의 환경에 맞추어 능동적인 콘텐츠 공급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렉토데이터, 2022).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글을 쓰고 읽는 욕구가 더 강해졌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글쓰기 플랫폼이

출현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블로그인 셈이다.

블로그란 인터넷을 의미하는 ‘web’과 기록을 의미하는 ‘log’가 합쳐져 탄생한 용어로서 네이버 블로그가 2024년 현재 내걸고 있는 “당신의 모든 기록을 담은 공간”이라는 문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일지 성격이 강한 글쓰기 플랫폼이었다. 장현미 등(2012, p. 49)은 블로그를 “인터넷 이용자의 사적이고 내면적인 기록을 위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이자 플랫폼”으로 정의하였고, 윤명희(2007)은 블로그를 “개인지향성에 기반한 사회관계”로서 커뮤니티적 특징을 보여주는 ‘1인 커뮤니티’로 보았다. 특히 권상희와 우지수(2005, pp. 431-433)는 블로그의 이용 동기와 목적에 따라 첫째, 일기나 감상을 기록하고 사진과 글 등 개인적인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자기추구적 매체, 둘째, 블로거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 셋째, 미디어를 통한 자아노출 심리와 ‘훑쳐보기’ 또는 ‘옛보기’ 식의 재미를 충족하기 위한 오락추구적 매체, 넷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추구적 매체, 다섯째, 개인적 관점에서 뉴스 기사를 직접 작성하거나 기존 저널리즘의 뉴스를 필터링하기 위한 저널리즘 매체 등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성을 가진 글쓰기가 가능한 블로그는 1997년 처음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새로운 사용자를 유입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²³⁾ 더욱이 ‘파워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키며 블로그는 더는 개인의 일지를 기록하는 공간이 아닌 지식의 창출과 공유, 정보의 제공과 유통, 상품 서비스의 홍보와 광고의 장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이미 수많은 독자를 보유한 거대한 1인 미디어로서 자리 잡으면서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MZ세대들의 블로그 이용

-
- 2) 블로그가 탄생한 지 10주년이 되던 해인 2007년 블로그의 발전 현황을 분석한 기사를 보면 “지속 성장의 원인은 검색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가 블로그에서 풍부하게 생성되고 있으며, 콘텐츠의 질 또한, 검색 이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닐슨 미디어 코리아, 2007).
 - 3) 예컨대, 2023년 20주년을 맞이하며 네이버 블로그가 공개한 ‘2023 마이 블로그 리포트’의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새롭게 개설된 블로그의 수는 126만 개에 달하고, 새롭게 발행된 글은 2억 4천만 개에 달한다.

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손지인, 2022; 이옥진, 2022; 한병찬 2023)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블로그 글쓰기는 원래 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나 정보를 ‘일지’ 형태로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그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글쓰기가 여전히 주류를 이룬다(강지웅 등, 2008, p. 297). 특히 여러 SNS의 ‘보여주기’식 게시물에 염증을 느낀 MZ세대들이 블로그를 개인의 일상, 진솔한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여 이를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공감’하는 장으로서 활용하기도 한다.

요컨대,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글을 읽고 쓰기 위한 도구가 늘 준비된 상황에서 원철(2008, p. 413)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인쇄 문화에 의해 조장되고 확고하게 굳어진 저자와 독자의 구분을 흐려졌고 전문적인 작가들의 힘이 약화되었다. 이는 곧 디지털 글쓰기 환경에서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인터넷은 ‘개방형’ 공간이면서도 설정을 통해 자신의 글을 공개하고 싶은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폐쇄형’의 특징도 가진다. 즉, 오늘날 디지털 글쓰기의 대표적인 주체라 볼 수 있는 블로거들은 독자의 범위를 선택하여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독자와 ‘공감’의 연대를 형성한다.⁴⁾

2.2 디지털 시대의 ‘번역’

‘디지털 글쓰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디지털 번역(digital translation)’을 정의한다면 이는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번역’ 정도가 될 것이다. 이에 디지털 번역은 대부분 디지털 번역도구나 번역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번역을 가리키며 예를 들면,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포스트에디팅 번역(post-editing translation), 번역 메모리(translation memory), 번역 CAT(Computer Assisted Translation)툴, 번역 어플(translation APP) 등을 활용한 번역 등이 이에 속한다.

4) 한 MZ 세대는 블로그를 쓰는 이유에 대해 “인스타그램에는 다들 행복한 순간의 사진만 게시하잖아요. 그런데 블로그에서는 실패한 경험도 진솔하게 쓸 수 있어요. 그걸 다 읽는 이웃은 뭔가 더 친밀감이 느껴지더라고요.”라고 말한다(김현유, 2024).

국내에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번역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기계번역이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번역을 저작권, 번역권 등 권리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도(김운명, 2022, 2023; 최효은, 2018), 시대적 변화 안에서 번역학의 과제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논의(이영훈, 2020; 이향 등, 2023),⁵⁾ 비전문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팬서브(Fansubs), 뉴스번역, 게임 번역 등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강지혜, 2012; 김순영과 정희정, 2010; 이상빈, 2016)에서부터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전문가’의 번역, ‘집단지성’을 이루는 번역의 특징과 문제를 고찰한 연구(김순미, 2016a, 2016b; 이지민, 2013, 2014, 2016)도 있다. 이 밖에 기계번역과 ChatGPT 번역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시대의 발전 흐름과 발맞추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각도에서 비전문가들의 번역 현상을 분석하여 그들의 번역 참여 동기를 분류한 김순미(2016b)의 연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순미(2016b, pp. 18-20)는 비전문가들의 번역 참여 동기를 첫째, 흥미나 관심 분야 공유, 둘째, 정치참여, 셋째, 통번역 자체에 대한 관심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학습, 넷째, 커뮤니티 내의 인정과 경력 개발, 다섯째, 인도적 봉사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며 비전문가 번역 현상이 학계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전문가들의 번역은 이처럼 다양한 동기 아래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번역의 목적이 번역에 있다. 다시 말해 결국 비전문가들 역시 A언어를 B언어로 옮겨 B언어권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번역을 한다. 그러나 블로그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은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번역이 아니라 그저 블로그에 게시되는 글의 한 재료로써 사용되며 번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번역이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그 번역 행위의 목적이 번역에 있지 않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블로그라는 글쓰기 플랫폼에 게시되는 개인적인 글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현상을 분석한다. 번역 행위가 중심이 되는

5) 특히 이영훈(2020)의 논문은 서론에서 “누가 기계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계번역에 대해 맹신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에 조금하듯 취한 대응이 가져오는 부작용 등을 거론하며 국내 번역학계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다.

번역 글쓰기 아닌 일상적 글쓰기 안에서 하나의 글쓰기 도구로써 활용되는 번역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3. 분석 대상의 선정

본고에서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글쓰기 플랫폼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의 티스토리과 브런치스토리에 게시되는 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중국 한시(漢詩)를 인용하고 번역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을 한시로 제한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인에게 한자는 낯선 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드시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어도 또한, 중문학이나 한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그 뜻을 해석하고 이를 한국어로 풀어나가 번역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번역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쉬울 것이라 판단하였다. 특히 뜻글자의 속성을 가진 한자로 쓰인 한시와 같은 고문(古文)은 글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도 그 뜻풀이가 가능하다. 물론 고문 텍스트에도 엄연히 문법이라는 체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고(典故)나 용사(用事)⁶⁾ 등이 쓰인 경우라면 글자 하나에 원문보다도 긴 주석과 주해를 달아야 할 만큼 복잡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뜻풀이가 어렵지 않아 블로거라는 불특정 다수가 게재하는 글 속에 하나의 번역으로 비교적 쉽게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시는 그 길이에 상관없이 한 편이 하나의 온전한 작품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의 정형시 하이쿠(俳句) 역시 17자 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한 줄만으로도 하나의 온전한 작품이 된다. 전혀 다른 글에서 하나의 작품이 그대로 온전히 인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

6) ‘전고’란 “경전이나 시, 고전 산문 등에서 나타나는 그 고유의 어휘 또는 어구, 짧은 문구 등”을 가리키며 ‘용사’란 ‘전고를 끌어와 글을 쓰는 것’을 가리킨다(이현주, 2023, p. 25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판에서 용사를 “한시를 지을 때, 옛날의 뛰어난 글들에서 표현을 이끌어 쓰는 일”로 정의한다.

깎다. 물론 시는 그 길이가 길지 않더라도 시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에서부터 시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 나아가 시가 가지는 독특한 운율이나 압운 등의 형식적인 측면은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 어려운, 번역의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전문번역가나 학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 번역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형진(2015, p. 149) 역시 “시 번역의 어려움은 시의 운율성, 함축성, 간결성, 상징성, 다의성과 같은 미학적 고유성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번역불가능성의 문제로 귀착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이 시 번역 결과의 품질을 논의하는 데 있지 않으므로 시 번역 자체의 난해함보다는 작품 하나에 대한 온전한 번역본을 인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셋째, 시는 인간의 감정과 직결되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는 그 길이가 짧고 리듬이 담겨 있어서 인간에게 친숙하고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데 다른 장르보다 강렬하다(이성옥과 김봉환, 2007, p. 820). 또한, 감정배출과 정화, 자기 이해, 힘을 얻음, 적절한 자기통제와 정서조절,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치료적 기능이 있다고 한다(Heninger, 1981, 이성옥과 김봉환, 2007에서 인용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로그의 글들은 저마다 다양한 목적성을 가지지만 자기표현과 타인과의 공감 형성을 위한 개인적인 일지 형식의 글쓰기가 블로그 글쓰기 플랫폼 탄생 본연의 목적이자 여전히 수많은 사용자를 이끄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면 다른 문학 작품 장르보다 이처럼 ‘감정’을 다루는 시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블로그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특징을 귀납하여 정리한 결과, 텍스트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본 장에서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1 텍스트 외적 요소의 특징

4.1.1 번역의 주체

블로거들은 현실 세계에서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상호소통한다. 한시의 번역을 담은 블로그 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시를 번역하기 위한 글, 즉, 번역이 주인공인 글쓰기다. 둘째는 번역된 한시가 수사적 장치의 하나로써 활용되는 일상적인 글로서, 이때, 번역은 그저 조연 혹은 조연도 못 되는 단역 정도에 불과한 역할만 한다. 이렇듯 쉽게 ‘번역이 주인공 글’과 ‘번역이 조연인 글’로 분류할 때, 그 번역의 주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게시된 글의 수준과 블로그의 제목, 블로거의 닉네임, 글 메뉴의 분류 방식과 제목 등 블로그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번역의 주체가 전문가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글쓰기는 학자들이 한시를 번역하여 출판하기 위해 하는 글쓰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한자 독음과 한자의 뜻 표기, 전고와 용사에 관한 주석과 주해 첨가, 4.2.1에서 논의하겠지만 인용 및 참고문헌의 출처 표기, 감상 포인트 등이 나타난다. 물론 정식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한, 시비 논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서 번역한 시에 관한 논평이나 감상평을 매우 자유로운 형식으로 덧붙인다. 이러한 글쓰기 대다수는 그 글쓰기 형식이나 앞서 나열한 몇 안 되는 정보만으로도 글쓴이, 즉, 번역의 주체가 교수이거나 중문학, 한문학, 국문학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본 자들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본인이 혹은 서예가가 쓴 글씨, 본인이 찍은 사진, 일상 속 에피소드 등이 주인공이다. 이러한 글쓰기 안에서 나타나는 번역 주체의 특징은 ‘비전문가’⁷⁾로 보인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비전문가’와 ‘비전공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비전문가’는 ‘전문적으로 번역 일을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비전문가여도 누구나 번역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일

7) ‘전공자’는 반드시 대학에서 공부한 다음 학위를 딴 자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떠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반적으로 ‘번역’하는 행위에는 번역 결과의 품질 수준과는 별개로 번역자는 반드시 A언어와 B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⁸⁾이며, 이로 볼 때, B언어를 모르는 채로 번역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 예컨대, 당시(唐詩) 번역의 경우 B언어는 한자 혹은 고문 해석본에 쓰인 현대 중국어가 되는데, 고문으로서의 한자나 이를 해석해 놓은 현대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번역이 이루어진다. 이는 곧 한시의 언어를 중국 당(唐)대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 도착어권 안에 존재하는 다른 기호로 보고 번역하는 이른바 ‘기호 간 번역’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Jakobson, 1994, p. 85).

그렇다고 본다면 이는 한시가 B언어 구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번역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블로그에 게시되는 번역이 블로거 스스로가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인용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4.2.1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이는 누군가 번역해 놓은 시를 그대로 가져와 인용하면서도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로 연결된다.

만약 전자라면, 즉, B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번역한 것이라면 이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한국은 한자문화권으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부터 오늘날 중국에서 ‘번체자(繁體字)’라고 부르는 한자를 문자로 사용해 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국의 언어체계에서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한자문화권의 대표 국가라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과거 입말과 한자의 독음이 달랐어도 글말인 한자를 매개로 하여 상호 교류가 가능하였다. 오늘날 한자는 주로 중국의 문자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상 15세기 한글 창제 이전에 쓰인 한국의 고문학과 고문서는 모두 한자로 쓰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고문으로서의 한자는 한국어권에서 다른 언어가 아닌 다른 문자 기호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자로 쓰인 고시(古詩)는 한국에서 지어진 시이든 중국에서 지어진 시이든 대부분 고문을 할 줄 아는 한문학자, 국문학자, 중문학자 등 다양한 전공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번역되어왔다).

8) 그다음에야 A 언어와 B 언어 구사 수준에 따라 번역 결과의 품질이 결정되며, 품질이 충분히 담보된다는 조건 아래 번역자가 번역가로서의 자질과 직업의식,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는나에 따라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블로그에서 번역 시를 게시하는 글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 번역 주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사실 기계번역의 품질이 날로 높아지고 생성형 AI인 ChatGPT가 그 진위여부를 떠나 유창한 도착어로 번역은 물론 글 쓰기까지 대신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번역의 주체에 관한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을런지도 모른다. 이제 인터넷 공간의 적잖은 플랫폼에서 인간 사용자가 본인이 기계가 아님을 확인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너무나도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또한,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언어를 모르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해외 스타에 관한 정보를 번역해 달라는 요청글이 올라오기도 했던 때를 되돌아보면, 마치 어느 SF 공상 영화에서나 등장했을 법한 수만 가지 외계어를 탑재한 자동 통역기를 귀에 꽂기만 하면 지구인이든 다른 행성인이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면이 지구에서도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한시라는 고문 번역의 주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자로 이루어진 고문 번역은 ‘언어 간 번역’이 아니라 ‘기호 간 번역’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논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1.2 번역의 목적

‘번역’에 관해 언급할 때 항상 ‘독자’가 전제되어 있다. 번역을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 ‘문학번역’과 ‘비문학번역’으로 분류하든, 텍스트 유형에 따라 ‘표현적 텍스트’, ‘정보적 텍스트’, ‘작용적 텍스트’로 분류하든, 오늘날 번역가의 직업적 특징에 따라 ‘출판번역’, ‘기술번역’, ‘영상번역’ 등으로 분류하든 모든 번역의 목적에는 늘 ‘대상 독자’가 고려된다. 예컨대, 문학번역은 그 평가의 잣대가 ‘충실성’과 ‘가독성’으로 독자에게 어떻게 읽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를 번역할 때

-
- 9) 실상 현대 중국어를 구사하는 전문가도 한시와 같은 고문 번역은 현대 중국어로 된 해석본이 없다면 절대 쉽지 않다.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중국 정부가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한자의 획수를 간소화한 ‘간체자(簡體字)’라는 한자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한자의 모양은 물론 쓰임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인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

에도 도착언어 독자의 사전적인 지식까지도 고려한 번역전략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연구도 있다(이미경, 2011). 이처럼 독자는 번역자가 번역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번역 행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한시 역시 ‘시’라는 문학작품의 한 장르로서 일차적으로 문학작품의 번역이 그러하듯이 ‘읽기’와 ‘감상’을 위한 번역이 주로 이루어진다. 한시의 특성상 ‘감상’을 위한 번역 이외에 ‘비평’이나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도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모든 번역은 대부분 출판이라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출판한다는 것은 이미 출판물이 누군가에게 읽힌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많이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바로 이 때문에 수많은 문학 번역서의 소개와 홍보 글에는 ‘독자’와 ‘친근’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늘 따라붙는다. 이렇듯 독자를 상정하여 번역을 한다는 것은 번역 결과물을 상정한 독자를 향해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블로그 글들을 분류하자면 누군가에게 많이 읽힐수록 수익 창출의 기회가 커지는 글쓰기, 즉, ‘누군가에게 반드시 더 많이 읽혀야 한다는 목적 아래 쓴 글’과 ‘그렇지 않은 글’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글쓰기가 바로 전형적인 개인적 일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로서 반드시 독자를 상정하고 글을 쓰지 않는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블로그는 블로거들의 다양한 글쓰기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사용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지식 창출과 확산, 정보 제공, 상품 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하지만, 개인적 측면에서는 블로그의 그 태생적 동기와 맞물리듯 블로거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고, 기록하며, 표출하는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 글마다 공개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을 통해 자신의 글을 공유하고 싶은 대상 독자를 제한하여 출판물처럼 독자를 향한 ‘제공’이 목적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를 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목적성을 가진 블로그 글 안에서 나타나는 ‘번역’ 역시 ‘독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자기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림 1>에서 나타나는 글의 특징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일지 형식의 블로그에 삽입된 한시 번역 사례
(작가나무, 2023: 창서비, 2020)

비 많이 왔던 주말이었다
월요일 새벽 세소리에 잠을 깨자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안개가 동해를 가리지 않았다
저루됐던 가을비가 그친 것이다
물새 소리 산새소리 멀리서 가까이서
들리는 새 아침이 시작되었으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잡힌다
오늘 하루 바쁘겠구나 하다가, 문득
그 거친 비에
살약 금강 그 오색영풍됐던 단풍이
다 졌겠구나 하는 생각에 들었다
이여 가을은 참혹한 계절이다

맹호연(孟浩然 689-740)의 <춘매>가 떠오른다
봄비에 꽃 떨어지면 그 또한
잘경인데
가을비에 단풍 떨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춘묘>의 시적 화자의 마음과
오늘 새벽 내 마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아침 커피 향으로
쓰린 마음을 달랠다
월요일 아침이다
고열을 받으며
천천히 완복해도 좋은 아침이다

66
춘매(春梅)
봄 봄에 취해 취해 온 문리는데
춘매(春梅) 춘매(春梅)
이로써로 정거하는 세소의 등극래
춘매(春梅) 춘매(春梅)
자니말 배마암 소의 들었으니
춘매(春梅) 춘매(春梅)
말이던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겠네
花事知多少(화사지다소)
69



일출 생각 #2579 - 2020년 5월 19일

창서비 2020. 5. 19. 6:47 URL 복사 +이웃추가

새벽까지 비가 내렸다. 이제서 비로소 불비가 온 것 같다. 올해는 매화나 벚꽃이 기분하게 날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 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니 간밤 비에 꽃이 얼마나 겹들까 걱정이 된다. 그런데 요즘은 비 때문에 떨어질 꽃도 그리 많지 않다.

맹호성의 시 춘묘(春曉)가 떠오른다. 봄은 지나갔지만 기분이 봄이니 오늘 새벽 느낌에 딱 맞는 것 같다.

春曉不覺曉(춘묘불각효)
春曉不覺曉(춘묘불각효)
夜來風雨聲(야래풍우성)
花事知多少(화사지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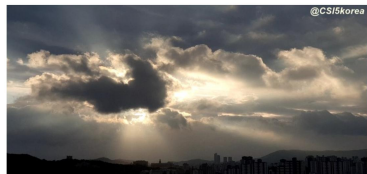
봄기에 빠져들어 새벽이 오는 것도 느끼지 못했네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들...
간밤 내루 배마암 소리 들렸는데
얼마나 많은 꽃들이 겹들지 않지 못하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평상시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눈을 깬다. 창밖에 세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니 세소리 때문
에 켜진 것은 아니지만... 비소리 때문에 깬다고 하기에 비는 이미 자자든 후였다.

눈 멎을 때 세상은 시커멓고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다. 출근을 하고 배통 시간이 지나고 나게만던 연개구름들은
지나 해가 모습을 드러낼 때, 구름 틈새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시커멓던 연개구름 떼를 이었다.



창서비: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저 두세은 구름층을 뚫고 지나가는 햇빛 단숨을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이 구름
다 지나가면 비에 베풀어줄 텐데 나는 한시 나날 시간이 있어 오늘도 화이팅 하고 해가 뜨는 것 같다. 이제 소
리로 들렸으면 나도 계절감이 아닐 것이라고 할 텐데, 아쉽게도 들리지는 않았다.



구름 뒤로 태양이 새발이 새발이 피지는 햇살이 뚜렷해졌다.

이! 가람은 관에 들어섰을 때보다 뒤에 가려져 있을 때 더 뚜렷했던 것은 말이구나!

파랑색만 것 맑고 깊은 곳에 가려온 분홍을 감피하는 것 같다. 오늘도 드러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재래했
다.

<그림 1>에서 제시한 블로그의 글을 보면 이는 개인의 감상이나 생각을 기록하는 형태의 일지 형식으로 삽입된 한시와 그 번역은 그저 개인의 감상

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글쓰기 재료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자기 표현적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블로그 글에 게시되는 번역은 ‘독자’가 전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상 독자가 번역자 이외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번역자 자신을 1인 독자로 하는 일지 기록을 위한 재료로써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특히 <그림 1>의 두 번째 글의 제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에서 제시하는 글 안에서의 보이는 공통된 특징으로 이미지가 활용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해당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이미지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일상에서 글쓴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삽입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4.2.2에서 분석한 텍스트 내적 요소의 특징의 하나로도 연결된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블로그에서는 번역이 글쓴이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읽힌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¹⁰⁾ 즉, 그 누군가를 향해 번역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셈이다. 블로거들의 이러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은 이를 읽은 누군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 ‘직역’, ‘의역’, ‘오역’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는 이지민(2016)이 분석한 네티즌 번역에서 나타난 ‘의역’과 ‘오역’을 동일시하며 ‘발번역’ 등의 용어 사용을 통해 자신의 번역을 낮게 평가하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독자’를 상정하고 그들을 향해 번역을 ‘제공’하는 번역을 위한 번역과 ‘표현’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는 번역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늘 독자를 향한 번역가들의 과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10) 물론 글쓴이가 이러한 개인적인 글을 개방형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 읽을 것이라는, 즉, 독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 글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글쓰기의 목적이 ‘번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4.2 텍스트 내적 요소의 특징

4.2.1 인용의 출처 표기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다른 이의 말이나 글을 가져와 쓰는 것을 흔히 ‘인용’이라 한다. 보통의 경우 말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모든 글은 문자를 통해 기록된다.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저작재산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오늘날엔 인용 출처의 표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4.1.1 번역의 주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문가로 보이는 글에서는 인용하고 참고한 글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글에서 인용한 글의 출처를 살펴보기란 어렵다. 더욱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번역이라면 어디선가 인용해 온 글임이 분명함에도 출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¹¹⁾

그림 2

글쓰기에서 인용한 출처를 명시하는 블로그의 사례
(착한인생, 2019)

【참고 도서】

唐詩三百首詳析<대만 : 中華書局 편집부, 1955>,
唐詩三百首<傳統文化硏究會 총제소의5인 역주, 2012>,
唐詩三百首<啓明大學 出版部 구삼우 편저, 安秉烈 譯, 2005>,
唐詩選 <보고사 奇泰完 選譯 2008>,
唐詩三百首<동서문화사 林東錫, 孫洙編 釋註 2010>,
【사진출처】[당시삼백수]春曉(춘효·봄새벽) - 孟浩然(맹호연) | 작성자 swings81

<2016. 11. 14. 孤松筆>

특히 인용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로 된 전문서적이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용 출처의 유무, 인용

11) 여러 사람이 같은 원문을 두고 각자 번역한다고 할 때 그 번역의 결과물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서로 같게 나타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블로그라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게시한 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번역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지 않다고 보고 길이가 비교적 짧은 시와 긴 시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의 길이와 상관없이 다수의 블로그 글에서 그 번역이 같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물론 그 어디에서도 해당 번역본이 인용된 출처의 표기를 찾을 수 없었다.

출처의 특징만으로도 해당 블로거가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도 판가름할 수 있을 만큼 전문가로 보이는 블로거가 쓴 글에서는 관련 서적을 비롯하여 글쓰기에 참고한 다른 블로그의 글의 출처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다수의 블로거들이 번역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2.2 이미지와 동영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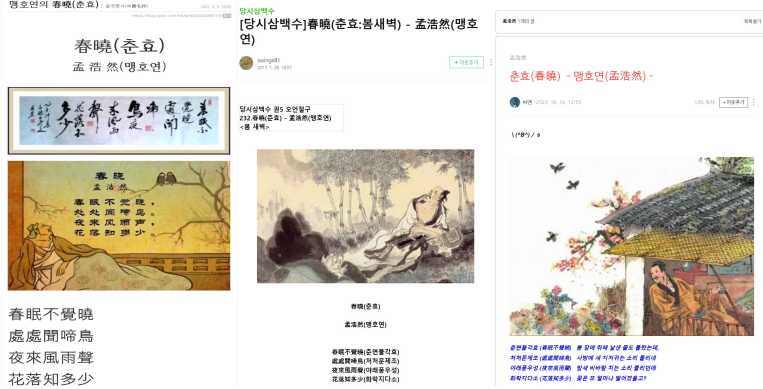
디지털 글쓰기의 특징이기도 한 이미지와 동영상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디지털 텍스트는 이미지와 영상 첨부뿐 아니라, 텍스트가 위치한 공간을 필자의 의도에 맞게 구획하고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김지연, 2014, p. 283).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번역 시와 함께 게시되는 이미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화(古畵)와 서예 관련 이미지가 많다. 고화는 대부분 관련 시인이나 시의 내용을 그림에 담은 것들이며 서예는 시를 붓글씨로 옮겨놓은 이미지로서 이러한 옛 그림과 서예는 또 다른 예술작품의 하나로서 독자가 번역 시를 더욱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고화와 서예 이미지가 많이 보이는 것은 중국의 한시가 ‘제화시(題畵詩)’ 또는 ‘화제시(畵題詩)’라는 형식과 함께 발전해 온 것과 궤를 같이한다. ‘제화시’란 “그림을 대상으로 삼아 소개하고 묘사하며, 그 속에 시인의 서정이나 의론을 담아내는 시를 통칭”하는 것으로 중국 송(宋)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정호준, 2014, p. 49). 일찍이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 국가에서는 예로부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백에 그림과 어울리는 필체로 시를 써넣었다고 한다(김병기, 2017).¹²⁾ 이를 <그림 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이로부터 중국에서는 시(詩), 서예(書), 그림(畵)에 모두 뛰어나다는 의미의 “詩書畵三絶”은 말로 이 세 가지에 모두 능통한 문인들을 칭송하기도 한다.

그림 3

고화와 제화시의 이미지를 담은 블로그
(락이망우, 2021; 스윙즈81, 2017; 씨맨,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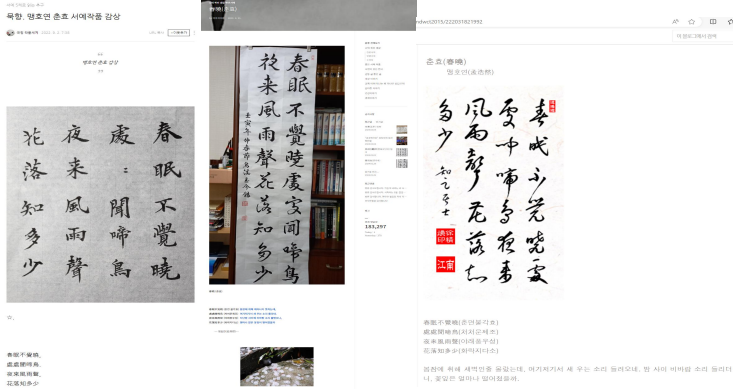
이처럼 한시는 시와 그림이 한데 어우러져 글로 다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은 그림으로, 그림으로 다 표현해내지 못하는 부분은 글로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한시의 발전 역사가 오늘날 블로그 글쓰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서예는 다양한 서체를 통해 시의 내용에 그림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최근 수많은 영역에서 ‘캘리그래피(calligraphy)’¹³⁾를 통해 과거 전자문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획일화되는 글씨체에 감성을 덧입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한시에서는 시 자체뿐만 아니라, 그림과 서예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발달해 왔고, 이는 블로그 글쓰기에도 반영되어 시 감상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보조 장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번역이 주인공이 아닌 글쓰기 안에서는 오히려 그림과 서예가 주인공이 되고 번역이 그림과 서예 감상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서예 이미지가 함께 게시되는 경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예가나 서예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한시를 재료 삼아 글씨를 쓰고, 자신의 서체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한시 번역을 활용한다.

13) 영미권에서 본래 ‘서예’를 의미하였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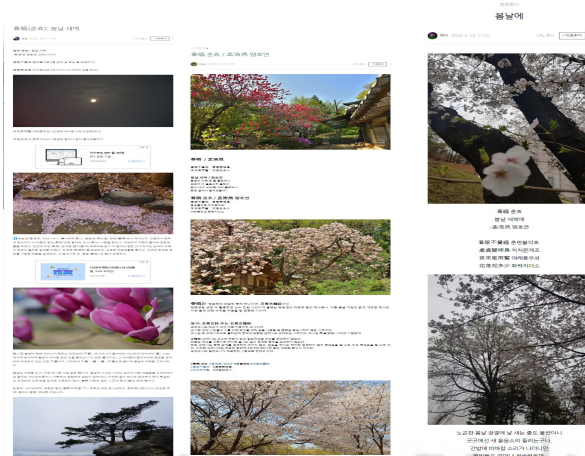
한시를 서예 이미지와 함께 게시한 블로그의 사례
(국정작품세계, 2022; 까마귀 마을, 2022; 지족상락, 2020)



둘째, 블로거 본인이 일상에서 찍은 풍경 사진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번역 시와 함께 쓰는 글의 목적이 단순히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5

일상의 풍경 사진이 주인공이 되는 번역의 예
(도암, 2023; 스텝제이, 2023; 제이, 2023)



4.2.3 하이퍼링크의 활용

글 안에서 활성화되는 글씨를 클릭하여 다른 글로 연결되며 상호참조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하이퍼링크’가 활용된다. 또한, 하이퍼링크가 달린 텍스트를 ‘하이퍼텍스트’라 하는데 이상우(2013)는 이에 관해 “컴퓨터나 다른 전자기기로 한 문서를 읽다가 다른 문서로 순식간에 이동해 읽을 수 있는 비선형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의 비선형적 구조¹⁴⁾란 전통적으로 “책이나 문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아래로 읽어나 내려가는 방식”을 가리키는 선형적 구조와 대비되는 개념을 가리킨다.

번역 시를 게시한 글 역시 디지털 글쓰기 특징의 하나인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을 보인다. 주로 블로거 개인이 올린 다른 유사한 시로 연결되어 자신의 다른 포스팅에 대한 클릭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번역 시를 게시하면서 참조한 다른 텍스트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 마치 참고문헌 목록처럼 활용한다. 이는 위키피디어나 나무위키와 같은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참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하이퍼링크의 방식과 같다. 물론 후자와 같은 하이퍼링크의 활용은 개인의 감정 표현을 목적으로 한 글쓰기의 형태에서가 아니라 번역 자체가 주목적인 글쓰기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정보의 제공’이 목적인 글쓰기에서 하이퍼링크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하이퍼텍스트가 본래 이상우(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하이퍼텍스트는 “정보를 검색하고 습득하는데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5. 논의 및 결론

본고에서는 디지털 글쓰기의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인 블로그 글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현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번역이 주인공인 ‘글쓰

14)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성(non-linear)이라는 특징 이외에도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도표, 공식, 사운드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역동성(dynamic), 저자 또는 독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상호작용성(interactive) 등의 특징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기의 목적 자체가 번역인 번역과 번역이 조연 역할에 머무는 ‘자기표현을 위한 글쓰기 수단’의 하나인 번역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블로그는 본래 개인적인 일지를 기록하기 위한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블로그 형태의 글쓰기 플랫폼이 출현한 이후 블로그의 글들이 가지는 목적은 매우 다양해졌다. 그러나 다시금 새로운 MZ 세대들의 블로그로의 합류를 이끌어 내고 있는 블로그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블로그라는 공간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고 이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상호 공감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로그 글쓰기 안에서 나타나는 한시와 이의 번역은 자기표현을 위한 글쓰기의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문학작품 가운데 인간의 감정을 함축적으로 노래하는 ‘시’ 장르의 텍스트로 선정하여 블로그 안에서 시가 번역되어 게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 분석대상을 ‘한시’로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B 언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언어 구사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어를 제외하고는 한자문화권에 속한 한국에서 비교적 친숙한 한자라는 고문으로 이루어진 ‘한시’ 번역이라면 누구라도 비교적 쉽게 이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는 그 길이는 짧지만 하나의 온전한 작품으로서 인간 감정에 대한 호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기표현적 목적의 글쓰기가 중요한 블로그 글쓰기에서 그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텍스트 외적 측면에서 볼 때, 번역의 주체와 목적에서 다양한 특징들이 드러났고, 텍스트 내적 측면으로 볼 때는 인용 출처의 미표기, 이미지와 하이퍼링크의 활용 등 본래 디지털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핵심 논의를 아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번역의 주체는 전문가, 비전문가, 비전공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한시로 분석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문자체계에 대한 친근감을 고려하기는 하였지만, 한자가 적잖은 이들에게 하나의 다른 언어로서가 아닌 한국어권 내에 존재하는 다른 ‘기호’로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언어가 ‘기호’체계임은 틀림없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번역의 개념이 ‘언어 간 번역’으로서 정의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중국 고전 문학의 한 갈래로서 한시에서 쓰인 한자가 하나의 언어가 아닌 기호로서 번역되고 있다는 점은 한시 번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물론 한시가 반드시 중국에서만 있던 장르가 아니라 한국 전통문학의 한 장르로서도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같은 접근은 당연할 수도 있겠다.¹⁵⁾

둘째, 번역의 과정에서는 늘 ‘대상 독자’가 전제되어 왔으나 블로그 글쓰기 안에서 나타나는 번역은 독자를 상정하지 않는 번역이 이루어진다. 독자가 늘 전제된다는 측면에서 번역은 늘 그 번역 결과물이 독자를 향해 ‘제공’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블로그 글쓰기에서는 ‘제공’을 위한 번역도 존재하지만,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일지 형식의 글에서는 번역이 그저 ‘표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면서 직역, 의역, 오역 등의 논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번역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인용 출처가 명시되고 있지 않은 번역 시가 많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해당 번역들은 블로거 스스로가 한 번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블로그에서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같게 나타나는 번역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동일한 원문을 여러 명의 번역자가 각자 번역하는 경우라도 완전히 같은 번역이 나오기가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인용 출처의 명시 없이 다른 누군가의 번역을 가져와 게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곧, 저작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번역의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블로거들의 번역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번역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계와 번역가, 미디어 등 번역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이미지와 하이퍼텍스트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본래 디지털 글쓰기가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특히 이미지의 경우 한시 번역과 관련하여 고화와 서예의 이미지가 많이 활용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한시가 ‘그림’, ‘서예’ 등과 함께 ‘제화시’로서 발전해온 역사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서예의 경우 번역 시

15) 15세기 한글 창제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 선조들은 한시를 즐겨 짓고 읊어왔다. 이는 중국 문학으로서의 한시와는 다르다.

를 위한 보조 장치로서 그 이미지가 활용된다기보다 시 번역이 서예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 장치로 활용되고 있었다.

본고에서 분석한 블로그 글쓰기 내에서 나타나는 번역 현상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번역에 대한 개념과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가능한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본고에서 논의한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번역이 아닌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의 번역은 앞서 본문의 분석 과정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기술의 발달로 ‘번역’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 기능도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국정작품세계. (2022. 9. 2.). 목향. 맹호연 춘효 서예작품 감상.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qkr11422/222864609280>
- 까마귀마을. (2022. 4. 21.). 春曉(춘효). 티스토리. <https://oleeogs0505.tistory.com/7049350>
- 도암. (2023. 3. 9.). 春曉(춘효):봄날 새벽.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cwh765/223039328991>
- 락이망우. (2021. 4. 8.). 맹호연의 春曉(춘효).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vfun48/222302997119>
- 스윙즈81. (2017. 1. 26.). [당시삼백수] 春曉(춘효:봄새벽) - 맹호연(孟浩然).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wings81/220920638222>
- 스텝제이. (2023. 2. 22.). 春曉 춘효/孟浩然 맹호연.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epj1/223023593826>
- 씨맨. (2023. 10. 16.). 춘효(春曉) - 맹호연(孟浩然).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nc1004/223237951657>
- 작가나무. (2023. 11. 6.). 맹호연의 <춘효(春曉)>를 읽는 아침.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fix81/223256743449>
- 제이. (2023. 3. 25.). 봄날에.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p505/22305>

5151869

지족상락. (2020. 7. 15.). 춘효(春曉).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dwct2015/222031821992>

창서비. (2020. 5. 19.). 일출생각 #2579-2020년 5월 19일.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csi5no1/221969692734>

착한인생. (2019. 11. 22.). (232) 春曉(춘효) 어느 봄날 아침에(春曉)-맹호연 (孟浩然;689-740): 5언 절구. 티스토리. <https://jk139.tistory.com/1144>

<2차 자료>

고려대한국어대사전. (n.d.). 전공자. Naver 사전. 2024. 2. 2. 검색,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6a29529b5264f3ab0f863315bf6428c>

강지웅, 김시현, 성윤희와 임드보라. (2008). ‘과워 블로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10, 295-330.

강지혜. (2012). 인터넷 상에서의 번역에 관한 고찰: 누리꾼들의 정치참여로서의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1-33.

국립국어원. (n.d.). 용사. 표준국어대사전. 2024. 2. 13. 검색,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249595&searchKeywordTo=3

권상희와 우지수. (2005). 블로그(Blog) 미디어 연구. 한국방송학보, 19(2), 419-460.

김병기. (2017. 11. 6.). [알쏭語달쏭思] 제화시(題畫詩)와 화제시(畫題詩).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hin0641/223222781939>

김순미. (2016a). 번역가의 ‘전문성’ 개념 변화의 필요성 — 디지털 시대 ‘비전문가’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 1-29.

김순미. (2016b). 디지털 시대 비전문가들의 참여 번역 현상. 번역학연구, 17(3), 7-32.

김순영과 정희정. (2010).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번역(Fansubs)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고찰. 번역학연구, 11(4), 75-97.

김윤명. (2022). 번역권, 통번역가의 창작적 권리인가? 정보법학, 26(1), 47-89.

김윤명. (2023). 기계번역,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 법제연구, 64, 247-286.

- 김지연. (2014). 디지털 텍스트 평가 기준에 대한 독자의 인식 연구. 國語敎育學研究, 49(1), 280-303.
- 김현유. (2024. 1. 6.). 블로그는 어떻게 다시 부흥을 맞이했는가? 에스콰이어,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83506>
- 네이버. (2023). 2023 마이 블로그 리포트. Naver. 2024. 1. 23. 검색, <https://mkt.naver.com/p/2023myblogreport#data>
- 네이버. (n.d.). 하이퍼텍스트. 네이버 지식백과. 2024. 2. 9.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6235&cid=42171&categoryId=42180>
- 닐슨 미디어 코리아. (2007. 11. 14.). [News Flash] 국내 블로그 서비스의 성장과 변모. 월간토픽. https://www.koreanclick.com/insights/newsletter_view.html?code=topic&id=189&page=11
- 손지인. (2022. 2. 25.). SNS 피로감 호소하는 MZ세대 ‘블로그 망명’. PD저널.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98>
- 월철. (2008).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자서전적 글쓰기. 人文研究, 55, 399-416.
- 윤명희. (2007). 블로그의 사회적 유형분석. 한국사회학, 41(1), 156-193.
- 이미경. (2011). 도착언어 독자 지식을 고려한 뉴스번역 전략: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언어연구, 28(2), 385-404.
- 이상빈. (2016). 번역기계, 팬번역가, 로컬라이저의 네트워크: 게임번역기 MORT를 통해 살펴본 게임번역 네트워크의 미래. 번역학연구, 17(3), 117-137.
- 이상우. (2013. 8. 2.). 문서를 뛰어넘은 문서, 하이퍼텍스트. IT동아. <https://it.donga.com/15495/>
- 이성욱과 김봉환. (2007). 시 활동 경험의 심리적 치유과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819-841.
- 이영훈. (2020). 번역공학적 이성 비판: 디지털 시대 번역학의 과제. 번역학연구, 21(4), 151-172.
- 이옥진. (2022. 4. 16.). [아무튼, 주말] 블로그가 돌아왔다... MZ세대 다이어리로 제2 전성기 맞은 플랫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4/16/HW52T3APBRH4DHYC3CZ5WV4Z2E/>
- 이지민. (2013). 사이버 공간에서의 번역 관련 집단지성 커뮤니티 연구. 통번

- 역학연구, 17(1), 177-202.
- 이지민. (2014). 집단지성과 네티즌 번역 특징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통번역학연구, 18(4), 141-166.
- 이지민. (2016). 집단지성과 역의제 설정 관점에서 바라본 웹 2.0 시대의 네티즌 번역의 기능과 시사점. 통번역학연구, 20(2), 103-128.
- 이지영. (2021). 디지털 글쓰기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문화와융합, 43(1), 603-624.
- 이향, 남원준과 이형진. (2023). 대전환 시대, 번역학의 지속가능성. 번역학연구, 24(4), 267-298.
- 이현주. (2023). 번역에서 나타나는 수사학적 효과구현의 문제 —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을 중심으로. 수사학, 47, 243-267.
- 이형진. (2015). 시 번역 불가능성의 역설. 번역학연구, 16(5), 135-155.
- 장현미, 김은미와 이준웅. (2012). 블로그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읽기 선호도가 대인적 및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6(2), 48-71.
- 정호준. (2014). 두보(杜甫)의 제화시(題畫詩) 고(考). 중국학연구, 68, 49-86.
- 최지연. (2023). 대학생의 디지털 글쓰기 인식 조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 11-26.
- 최효은. (2018). 디지털시대 번역자를 위한 저작권법의 이해. 번역학연구, 19(1), 277-304.
- 한병찬. (2023. 1. 6.). 인스타·틱톡에 밀렸던 ‘블로그’ MZ세대 갈아타기에 ‘역주행’...그들은 왜?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16577>
- 함대훈. (2022. 5. 25.). 인터넷, 웹 3.0으로의 진화. 삼성 SDS 인사이트 리포트.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index.html?moreCnt=0&backTypeId=&category=&reqArtId=1266227>
- 헥토타터. (2022. 1. 7.). 웹 3.0의 시대: 인터넷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 Hecto Data Blog. <https://blog.hectodata.co.kr/web3/>
- Jakobson. R. (1994). 일반언어학 이론 (권재일 역). 민음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63)

Exploring translation phenomena in South Korean blogging platforms: Focused on the translation of classical Chinese poetry

Hyun-joo Le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manifested within the diverse purposes of writing on blogging platform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posted on the three most popularly-visited blogging platforms in South Korea including Naver Blog, Kakao's Tistory, and Brunch Story. The analysis primarily focuses on the phenomenon of quoting and translating classical Chinese poetry within blog posts. Th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observed in blog posts are divided into two aspects: internal and external elements within the text. The analysis on the external elements of the texts reveals that the translation subjects appeared in a diverse range, and their translation purposes often leaned towards serving as tools for self-expression. This study also highlights some pronounced internal elements such as the omission of citation, the use of images and hyperlinks, and other features of digital writing.

Keywords: Digital writing; blog; quoting and translating; poetry translation; Chinese poetry

키워드: 디지털 글쓰기, 블로그, 인용과 번역, 시 번역, 한시

이현주

가톨릭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조교수

zhou99@catholic.ac.kr

논문 투고일: 2024년 2월 14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3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3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3월 15일

